

고수온·해파리·적조 ... 전남 어민들 초비상

양식어종 폐사로 역대 피해 예찰활동 강화 등 예방 총력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치솟으면서 수산물 피해가 속출, 전남 어민들의 마음이 멍들고 있다. 여름철장계 적조와 고수온, 해파리까지 곳곳이 지뢰밭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적조가 오는 15일경 출현할 것으로 보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으로 고수온이 형성된데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연안으로 영양 공급이 활성화돼 적조가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양식어류 대부분이 온대성 어종인

탓에 폭염으로 달아오른 바다에선 면역력과 체력이 떨어져 작은 자극에도 폐사할 수 있어 양식어류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환경에선 1㎡당 개체수가 1000마리 이상인 고밀도 적조가 덮칠 때 양식어류가 폐사하지만, 고수온에 오래 노출된 상태라면 이보다 낮은 밀도에도 어류가 쉽게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온 변화도 심상찮다. 7~8월 계속된 폭염에 따라 일사량 증가로 고흥~광양 동부해역 수온이 국지적으로 28도 이상 상승, 국립수산물학원이 지난 6일 낮 12시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남 해역별 수온은 이날 현재 여수 신월~장흥 회

진 27.1~29.9도, 완도 동백·청산 27~27.4도, 해남 화산 27.4도로 매우 높아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고수온이 계속되면 양식 어패류는 수온쇼크, 생리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질병감염 증가, 산소 부족 등으로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8일 신안과 여수의 양식장에서 어류 7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피해 규모는 1억여원에 달했다. 수산당국은 폭염에 따른 바다 고수온이 폐사의 원인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적조·고수온으로 6개 시·군 523어가에서 어류, 전복 등 4727만 마리가 폐사해 38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어선업계도 비상이다. 득량만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가 100㎡당 14개체 이상 출현, 전남도가 최근 '주의' 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득량만은 3년 연속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2014년에는 관심경보가, 2015·2016년에는 주의경보가 내려졌다.

이 해파리는 크기도 작고 독성도 미미하지만 무리를 이루면 어선 조업에 치명적이다. 그물 조업때 상당량의 해파리가 채집되는데 무게가 상당해 그물을 끄는 것조차 힘에 부친다. 그물이 찢어지는 불상사도 빈번하다. 물고기들이 해파리 떼를 피해 달아나면서 어장도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잦다. 그러나 잡힌 것들도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성이 없다. /박정욱기자 jwpark@



곡성 전통시장 독방길에 예술 꽃 핀다

'갤러리 독방' 문화 공간 조성 주민·예술인 작품 전시·판매

곡성 기차마을과 전통시장 사이 길옆에 노란색 '갤러리 독방'이 들어섰다.

갤러리 독방은 곡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6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설치한 문화소통 공간이다.

컨테이너 3동으로 구성된 갤러리 독방의 외관은 곡성(Gokseong)과 갤러

리(Gallery)의 앞파벳 'G' 모양을 띠었다. 또 기차마을 전통시장 독방길 노란 천막 아래 열리는 독방마켓과 조화를 이루도록 외관을 노란색으로 꾸몄다.

2층에 설치된 갤러리에서는 주민·독방마켓 참여자·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판매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갤러리 독방 2층 전망대는 아름다운 곡성천과 인근 기차마을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로 여행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은 한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생태관광 숙박시설 '에코로트지'



국민여가캠핑장

남원시 에코로트지·여가캠핑장 개장 ... 생태관광 오세요

지리산둘레길·덕산저수지 연계 물놀이터·생태체험 등 다채

지리산의 대자연의 느끼며 쉬 수 있는 생태관광 숙박시설과 국민여가캠핑장이 개장한다.

남원시는 11일 운봉읍 백두대간 생태교 육장 인근에 생태관광 숙박시설 '에코로트지'와 국민여가캠핑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에코로트지'로 이름붙은 숙박시설은 커피실 4실, 가족실 1실, 단체실 1실로 구성됐다. 오토캠핑장은 31면으로 세척장,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숙박시설 이용료는 주중을 기준으로 커피실 8만원(주말·공휴일 10만원), 가족실 10만원(주말·공휴일 12만원), 단체실 20만원(주말·공휴일 22만원)이다. 국민여가캠핑장은 2만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지리산둘레길 1코스와 덕산저수지를 연계한 생태탐방로, 지리산 바래봉과 허브

밸리, 이성계 장군의 왜구 섬멸을 기념한 황산대첩비 등과 인접해 둘러보기에도 좋다는 게 남원시 설명이다.

남원시는 일대에 물놀이터, 수변공원, 생태관광시설 등을 추가로 만들어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드들강에 울려 퍼지는 '엄마야 누나야'

나주문화원 '안성현 합창제' 내일 남평 솔밭유원지서

나주문화원은 오는 12일 오후 4시 남평읍 드들강 솔밭유원지에서 '2017 안성현 합창제'를 연다.

나주시립예술단과 나주 마을합창단 10개팀 200여명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8·15 광복절을 맞아 남평이 고향인 천재 음

악가 안성현 선생을 기리고자 열린다.

시립국악단은 안 선생의 대표 작품인 부용산, 엄마야 누나야 등을 공연하고 나주시립합창단과 마을합창단은 진달래, 들국화, 앞날의 꿈, 내고향 등 선생이 작곡한 노래들로 합창 무대를 꾸민다.

'엄마야 누나야' 노래비가 세워진 드들강 솔밭유원지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한층 다가가는 음악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문화원은 밝혔다.

일제 강점기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에 곡을 붙인 율복 음악가인 안씨는 일본 도쿄(東京) 동방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후 광주사범학교, 조선대 등에서 교편을 잡고 왕성한 음악 활동을 폈다. 특히 안씨가 목포 항도여중에 근무하던 1948년에 작곡, 호남에서 애창됐던 '부용산'은 율복 인사가 곡을 만들고 빨치산에 의해 널리 불렸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묶이기도 했다.

안씨는 2006년 4월 86세로 타계한 사실이 전해지고 나서 재조명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노년기 사회활동 중요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특강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은 최근 정읍시 노인복지관을 찾아 '노년기 사회활동의 의미'를 주제로 특강했다.

유 의장은 이날 증가하고 있는 노년인구의 사회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여가를 즐기는 방법 등에 대해 참가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곡성군, 멜론 활용 6차 산업 육성 박차

농식품부 선정 30억원 지원 읍일대 산업지구 12.6㎢ 조성

곡성군의 '기차타고 멜론마을 융복합 지구'가 정부의 2018년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농식품부가 공모한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관광 분야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6차 산업화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목표다.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국비 15억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곡성군은 곡성 멜론 주생산지와 연계한 6차 산업지구를 곡성을 일대 12.6㎢ 부지에 조성한다.

곡성군은 2008~2012년 추진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곡성 멜론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냈다.

그 결과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대통령상, 세계농업기술품(수출부문) 대상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군의 멜론산업과 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섬진강 기차마을 등 3차 산업의 관광자원들을 활용해 6차 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남원 춘향골 배, 베트남 등 수출길

남원의 춘향골 배가 10일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다.

춘향골 배는 수출원예전문생산단지가 재배하고 최첨단 당도 측정기를 통해 공동 선별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는 게 남원시 설명이다.

이날 13t이 선적됐으며 연말까지 배

트남과 대만, 홍콩, 뉴질랜드에 추가로 수출될 예정이다. 춘향골 배는 지난해에도 동남아와 캐나다 등지에 270t이 선적됐다.

남원시는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비와 물류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원도 약산면 덕암리 해수욕장점 2481㎡ 별장적합 2억4천
- 곡성 옥과읍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원도 약산면 해안가 대지 617㎡ 팬션을 주택과 누시베 1억 1500
- 화순군 통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완도 고금면 땅 2672㎡ 주택 137㎡ 전원생활적합 1억8천
- 아파트 남구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1억1500 임대가능
- 아파트 북구 오치동 혁신 78㎡ 9층 율리모텔링했다 1억3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1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역 367㎡ 건물신축적합 4억9천
- 고흥 통일면 6891㎡ 팬션있고 요양시설·연수원 등 적합 10억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 인근 1억7천
- 광산구 송산동 7725㎡ 빌라·다세대적합 12억3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정적합 담양 봉산면 제일리 3501㎡ 1억1500만원
- 담양 금성면 42900여㎡ 전원주택단지 적합 도로중을 34억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상가건물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남구 월산동 신축중인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 상가, 2층 원룸과 투룸, 3층 안집 살면서 임대생활적합 5억6천
- 주월동 우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충진로4가 요지 대지 261㎡ 건평 1128㎡ 전세3억 월 천만원수익 25억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임대중 9억6천

급매

- 남구 송하동 산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감정 2억5천, 매도 1억원
- 영암 산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시가 2억 3천 매도 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싼! 전 답 입야

바로 삽니다!
(주) 오천개발
010-3605-5000

| | |
|---|--|
|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층 95㎡(28평) 보400/월47(임대중) 수익률 12% 이상 매매 6000만원 |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층 49㎡(14평) 보200/월25(임대중) 수익률 12%이상 매매 3000만원 |
|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층 49㎡(14평) 보200/월25(임대중) 수익률 12%이상 매매 3100만원 | <h3>수완지구 아파트 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초·중·고 바로 인접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매매 2억 7000만원 |

문의 010-9203-6161